

작은 기업  
12월

원형: 김태오나드 유리에위치 1920년 5월

5월생, 북한 전역에서 당시업에 있어서  
안산당원 허가이름 당장사라고 칭하였던면  
작은 기업은 인민군대 당원회 사업에 있어서

발사였다. 그것은 오나드 허리에 인민군대내 당원회  
사업이란 첫 단어가 <sup>인민군대 조직당원인 1947년봄에</sup> 조사환의 힘으로 붙어 조선

인민군대내에 퍼지기 시작하였기 1955 때부터  
이다. 작은 기업은 인민군 조직당원 붙어 인민군대내  
총정회국 부책업자로 지냈으나 그후극장으로 ~~또~~ 신근기  
일어나, 박형영이나 김재동이 같은 유력간부들이  
총정회국총지부를 지냈으나 당원회 사업은 작은 기업이

조직지로 하였다. 군대내 당원회 자립이된 간단한 <sup>분리</sup>  
가 아니다. <sup>이후</sup> 군대내의 위력은 당원회 일꾼들에게 달렸  
때부터 다 해부하면 군대의 힘이란 그에 속하여 있는 사람  
에게 관계되었기 때문이며 그사람들이 자립성을 당원회  
일꾼이 조직화한 기사도 때문이다. 비교적 특성이 강한

북한 인민군대이기도 하지만 <sup>같은</sup> 기업과 같이 인민군대내 당원  
회 기관들은 조직한 많은 정회일꾼들이 1925 등 조상



1. 1회 공역이 불어의 힘으로 남한을 국지적으로  
 2. 북한과 남한 Quarrel 양에서 전의 후 이전  
 3. 장 단신 회고사령관의 공상은 북으로 돌아 가고  
 4. 김일성은 평양까지 데우고 양강도 산간  
 5. 백지 백중이 갑후에 있는 연서 제 1회 공역 총  
 6. 화 회의를 열고, 전쟁에서 실패로 당한 원인을 전역다  
 7. 무림, 양도선, 큰 김일자에게 넘겨서 9인 자기도 하늘에서  
 8. 비록다 볼기만 구경준으로 결을 하고 여러 1회 공역  
 9. 양강 남한을 점령한다 북한 남한 그의 생각대로  
 10. 중국 지원군이 돌아 오자 북한 남한 기다려야  
 11. 미국은 선제공격은 국제 기구에서 는 중국 공산군도 북한  
 12. 보지 못 하는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13. 이후 김일성 사령관은 북한 남한 북한 남한  
 14.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15.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16.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17.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18.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19.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20.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이상 새로운 조직 개편이 의하여 <sup>김일</sup> 권은 김일  
~~최~~ 서부전선 군사위원회, 동부전선 군사위원회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  
 역시 김일의 아류가라 <sup>권은 김일</sup> 권은 김일, 역시 <sup>김일</sup> 권은 김일  
 하인 양강으로 가서 죽고 있었다. 당시 조선인민군 총  
 서부 ~~전선~~ 집시 주장에는 평남 도당 위원장도 있던  
 김제욱이 <sup>김일</sup> 권은 김일, 서부 전선 <sup>김일</sup> 권은 김일  
<sup>김일</sup> 권은 김일이 <sup>김일</sup> 권은 김일.

<sup>김일</sup> 권은 김일이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화하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권은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화하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광활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비교적 비옥한 땅이라  
 다수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권은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권은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권은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김일 동지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수행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권은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사기를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김일 동지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sup>김일</sup> 권은 김일로



이 철축은 관악인 것은 김일은 각 원함부대, <sup>(5)</sup> 부대의  
 구분대 정형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정권이 지난 1년 후  
 하류는 ~~최근~~ <sup>민족보위상의</sup> 정형으로 인민군대내 전후역으로  
 일층강화하세라 적등방어 대한 경각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  
 민군대내 당정회 사업은 각 일층 강화할 터에 대하여는 <sup>행동</sup>민중  
 민족보위상 최용건 최수이 이공으로 하달되었다. 명령서이  
 권영 공원 사어와 권영이후시에 들어서면서 <sup>군대내에서</sup> 발생된 이적부령  
 행위들은 지적한즉 어상 군사규율 위반을 근절하세라 군인들의 사상  
 을 당파 최근사령안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sup>전혀</sup>민중  
 부대, 부대 구분대 내에서는 당외포 회의로 불어 시정하여  
~~이~~ <sup>이</sup>공공 당장회의 총회 해단 여인 군인들에게는 당외성  
 자 회의들도 진행 하것을 지적한가을 부대내 각 단위로에서 정치  
 학습, 신용양육 등을 권하여 김일성 최고사령관이 전설적  
 항일 <sup>애국적</sup>정신어린 <sup>애국적</sup>정신어린  
 당외성 ~~이~~ <sup>이</sup>공공 당장회의 총회 해단 여인 군인들에게는 당외성

각은 김일이 그 명령서를 들고 읽어보니 그 ~~명령서~~ <sup>명령서</sup>에서 불합  
 문들과 집행해될 경우로적 대책등이 아주 적절하게 적혀  
 있는 한편, 민족보위성에서 하달하는 불건에 중대노태에  
 부대들에서 무엇-무엇을 하리요것은 아래 정형은 <sup>전혀</sup>그런데  
 없이 막 밀다지를 내리레기은 격으로 되었다는것을



아주 즐겁은 시기였다. 실컷이 예술공연은 모란봉 지하 극장에서 문화선전성 허정숙상과 당중앙위원회 선전부를 위하여 지도하여 대대적 신년 축하연회가 있었던데 그 연회에 각 군단, 전선 사령부, 각 병종 사령부 지도자들 각도 중앙지도 간부들이 참가하게 되었다. 동연회에서 최고형극단 단장과 조인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만나 과거의 사연을 재미있게 논하듯, 그 다음날 저녁에는 "인두리브는 뱀의 땅에서" 자기들이 새해맞이 연회를 갖게 되니 인민군 정치간부들 몇명이 동부인하여 그 연회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받았었다. 작은 김일은 그 초청에 대하여 그 극장에서 간사의 뜻을 접수하 초연에서 나온 정치간부 몇명에게 권하였다. 그 이튿날 정월 초하룻 날날에 작은 김일 부부, 장항남이 부부, 리술백이 부부, ~~문화선전성~~ 1950년 1차 공격축 후회시기에 26 인천 태안 방역 여단 여단장 이성봉의 부인까지 합하여 40명이 저녁 6시 경이리자 평양 인두리브는 뱀의 땅에 내드하비 최고형극단은 기쁨하여 인민군 대표들을 만수하였다. 참가자들은 중에는 전선인민군 총참모부 회사부장 정문응이 자기 부하 <sup>한명</sup>을 데리고 참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부장이 연회에 참가한 것이



9  
꼭 직무상 필요에 의해서 출가한것이 아니라 조동장  
중앙의 지시에 따라 초원에서 온 간부들이 부흥행동을  
하는가 감시되도록 하였었던것이다. 때문에 이두영은 작은  
김일과 그의 동료들의 눈치만 살피고 보일면서 ~~화장실~~ 화장실에 까지  
따라 다니며 감시하였던것이였다.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비열적이기  
때문에 작은 김일은 그 의사부장을 붙잡고 좀 견고를 하려고  
하였다. 작은 김일이 화장실에 들어가니, 그들로 그 열한  
화장실에 들어가 좀 서있다가 김일이 나온 언저리가 나  
뒤따라 나오는것이였다. 어때면 작은 김일이 그놈을  
세워 놓고, 왜 사냥의 뒤를 그렇게 따르는가? 고 물으니  
자기는 자기 앞대로 행동하는거지 김일 동지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던 와중 두번이나  
내가 여기에 오니 너도 오든거지? 고 물으니, 그것도  
나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간거지 군사위원 동지 뒤를  
따를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어리석은 우주의 위업일과  
다카리고 흥분들을 하는기야 하면서, 외국 손님들이 오셨는데  
최면하게 놓지말고 그방 두는것이 좋을것이야 하니, 화를 발기  
하면서, 그것 더 군사위원의 <sup>차별 동지</sup>인가? 내가 더 장로동지야. 부관  
인가 하면서, 제 안 큰 소리를 치면서 아담 비축하는 것이  
였다.

어때서 2월회를 갖고있는 걸지 많은 끈에서 <sup>(10)</sup> 높은 반포리가  
부기에 항공사령부 군사위원 장항봉 배려를 얻음으로 그 끈에 각자  
작은 김일이는 외사부장 정문은 상좌를 할 걸로 궁둥머리를 한  
대로 다시 구하 허려는 것이었다. 장항봉 군사위원은 심숙히 작은  
김일이를 볼 장이면서 외국 손님들이 보기에 장령들이 서른 차우  
것은 나라의 큰 양심이 그 반 뒤야 된다고 하대면서 알렸다  
외사부장은 한채 이해냈고 허드받아 어리죽고 보자, 네놈이 할  
나 우쭐리리인 단말가? //

이 행투가 끝난 후 약 1주일의 재부와 민족보위성  
당 열성자 회의가 진행되니 꼭 참석하라는 홍진서가 항공  
사령부 군사위원 장항봉에게도, 또 서부전선 군사위원장은  
김일이께 전달되었다. 이것이 바로 1958년 1월 20일  
이었다. 당 열성자 회의 민족보위성 중앙 회의실에서 전  
되었다. 그 주석단에는 민족보위성 최동건 최우 증  
당 중앙위원회 대표 김형만 선전부장, 홍삼모장, <sup>김광현</sup>홍광희  
국장, 부부참모장 김 작전국장 등 4이 등장하시니 타리  
에는 홍기연전도 각 군단, 김단군 전선, 각 병종 사령부  
사령관들, 군사위원들, 정치부장들이 참석하였다.  
당 열성자 회의 순서는 단 하나뿐 - 부분적 지도간부  
들의 당 정치үүл 위반에 대하여.

연신군

당 명칭자 회의 보고는 <sup>연신군</sup> 총정칙 조적복강 이하였다  
 보고서에는 주민의 목에 군사정치의 정기에 대하여 간언  
 함이 없었고, 주민의 정세와 경변대를 일부 장령들은 안일  
 묵화한 생활 봉착하여 민족분위성의 명령서를 존엄성 있게  
 이의의 상황에서도 각종 기회와 조건을 리용하여 <sup>연신</sup> 연일히  
 집행해야 할 대신에 그 명령서 내용을 군인들에게 전달도  
 하지 않고 미행과 저행과 하면서 부정권의 경향을 발휘하면  
 서 연신군내에 유독한 사태를 좌지우지한 한편 상부와 하부를 리탈시  
 킬 <sup>동향</sup> 동향을 꾸꾸고 있다. <sup>연신</sup> 연신군내 <sup>연신</sup> 연신군내 <sup>연신</sup> 연신군내  
 이 그러한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는 연신군내에 군사주  
 를 강화 하기 위하여 각 집단군, 연방부대, 부대 각 구별 단위로  
 이르기까지 양정치 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당 총회들을  
 진행할 때 대한 민족분위성 명령을 기억하고 조롱하면서  
 작기의 개연적 비당적 대립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외에  
 김일동지은 항공사령부 군사위원 장학봉 등등과 함께 자  
 기 하위대로 외국인으로 신년 기념행사를 참가하면서  
 의사 부장과 사촌하 ~~사촌하~~ 장학봉 군사위원과 같이 "저  
 빨라 저산 부대 출신 무식재 아아들은 곧 출마 들어가야 한다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sup>연신</sup> 연신군내 <sup>연신</sup> 연신군내 <sup>연신</sup> 연신군내  
 계층하는 연신군내 <sup>연신</sup> 연신군내 <sup>연신</sup> 연신군내 <sup>연신</sup> 연신군내

12.  
당연성과 대회에서 진출한 날과 같은 운동장 중영위원회  
현전위원장, 그 당시 ~~원~~원근대내 당 서상집도 흥자로외으로 잇테까지  
내 문구마다 초원간부관부으로의 다른 ~~반~~반상관으로 허위발조  
를 발송 외조하여 원근대내에서 초원간부들은 후일한데  
는 허가어 안상, 박상목 정동영 현전위원장 현책 정책의  
게속어였다.

기쁜 번리가 끝난다음, 오래동안 호를찾가라로어 있다  
가 (사전에 준비시킨 쿠를 호를자르) 서북정전 사형한  
기권부, 보외성 군사교육국 학극관 허병학, 보외성 일반구장  
장 정학문, 정철국장 유성철, 정희안구장 신산 등이 호를이  
찾가히였어 버린다를것은 호를에서 나부지않았다.  
정산 등지와 초원 사형관은 김일동지의 ~~반~~반 ~~한~~한양하고  
호를어였다. 북정적 가르어 대회에 참여 할수호 ~~반~~반  
치 양과 ~~반~~반 사 실패한것 같은데 이 ~~반~~반 ~~한~~한동사호 ~~반~~반  
중요적이라고 말어였다.

그러나 피히 곳곳하에 가지밖으로 걸로환 ~~반~~반 회동권  
원쪽 보외성은 다음같은 인으로 네였다: 김일의 ~~반~~반  
주들의반은 원근대내 상부과 하부를 이할 ~~반~~반  
아주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반~~반  
행동어 ~~반~~반, 외국 ~~반~~반 ~~반~~반 ~~반~~반

13  
우리한 기강군의 형제 연합회사 전설적 위신을 전하기  
위하여 연합회원 수를 늘려 성원은 구하한 것은 군내내에서  
동남한 등 여러 때부터 나온 기일 소장을 조사하여 전  
매의 철적 성격까지, 이번 군내에서 우리 대변자인 어떤  
계속하여 <sup>본회의</sup> 기일 어와 같이 이번의 행를 여러 활동한  
행동사행부 조사와 광학봉어은 그적위에서 철적행에  
다른 적들이 조종하라는 명령행행했다.

그후 기일은 이번군내에서 재차하여 1개월이후  
전설대부 조사행부 상공고위으로 조종되고, 광학봉  
어은 이번군 기일적 정회군관행고관으로 내려왔다.

이 이후 이번군내에서 복종하여 노력과 정회 간부들의  
행사은 여러 달된과 같다:

당시 총정회국장 최종환씨는 (기일반의 가장 믿게 부턴 적위)  
이번군내에서 기일행 형일 령사 고양은 옥타하리 하였다  
뒤로 철적 재대 봉출에서 등행사리로 하여 사방 아들 최바타  
나호 등 노년 유년에서 기일행과 같은 행를 여러 차례 행  
행부 조사 조사 위와 같은 행을 여러 차례 하여 모든 정회 위장을  
노래 하면서 "이들은 대항은 나오지 않았고, 아주 격행이  
좋은 단 정회 사업 경험에 능숙하며 특히 광학 이번군내에  
사방어 흥행한 것" 라고 하였다 하여서 철적 재대 감행군  
이번 위회회 과감으로 행행 하다가 사방.



김일 (작은김일)

팔 일 등리는 1920년 5월 5일 함경북도 경산시 번들리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sup>조국부친 김두걸은</sup> 1919년 대한 독립 만세 시위와 관련하여  
 투옥되어 1년 이상 고생하다가 석방후 조선의 독립을 위한 활동에  
 많은 공헌을 위하여 찾아 출정하였다. 그후 1925년에 김일군은  
 두어 동생과 같이 어머니를 따라 원동(연강 쓰바쓰크 시에 와서  
 집거 부친을 만나 살게되었다. <sup>1933년</sup> 1933년에 쓰바쓰크로 이주하여  
 을 졸업하고 동년 <sup>1934년</sup> 1934년 유게후 시위 <sup>현사범</sup>에 참가하여 <sup>1935년</sup> 1935년 8월 31일  
 1933년 8월 31일 1935년까지 공산군 혁명군인으로 다뉴게후  
 동북에서 활동하다가, 1945년 10월 8일 조선의 조국로 하여  
 1945년 10월 25일 소속으로 북한에서 조선 혁명군인으로 복귀 하였다.  
 1947년 8월 15일 조선인민군을 조직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정치총국 부총장으로 1950년 5월 까지,  
 1950년 6월 15일 1950년 10월 25일까지 조선 정치총장,  
 1950. XI - 1952. II 까 정치총국 부총장,  
 1952. II - 1956. I 시에 조선사범부 군사위원  
 1956. I 연변군대 설치, 조선 국방,  
 1956-1960년 10월 10일 다뉴게후 중앙 고등학교 부장행  
 1961. I - 1963. X - <sup>1961. I</sup> 1961. I, <sup>1963. X</sup> 1963. X, <sup>1961. I</sup> 1961. I  
 부총장, 1964-1972년까지 - <sup>1964. I</sup> 1964. I, <sup>1972. X</sup> 1972. X,  
 A-Avia 등 시에서 혁명군 병사 기증의 지배인,  
 1973-1980 국영 농장 당위원장의 위임장 (국고고  
 1987년 XII. 03 일에 공화국 서기. <sup>1987. XII. 03</sup> 1987. XII. 03, <sup>1987. XII. 03</sup> 1987. XII. 03

15